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유입해 균형발전 꾀할 것”

정철원 담양군수 취임 100일

농식품부 농촌협약...369억 확보
생활인구 1위 등 인구정책 결실

“인구 감소지역에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정철원 전라남도 담양군수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담양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군정 방향을 밝혔다.

정 군수는 “그간 군정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형 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대표적인 성과로 ▲농촌협약 체결 ▲복지 인프라 확충 ▲생활인구 확대 ▲정주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중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무정·금성·월산 등 6개 면에 2029년까지 369억원이 투입한다. 단계적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무정면, 금성면, 월산면, 수북면), 2단계(봉산

면, 대전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반룡리)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의료·교통 등을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인구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담양군은 2024년 4분기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으며 등록인구의 7.7배에 달하는 체류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정주 인구 확대로 잇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69억원을 투입해 3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구정책에도 211억원을 확보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담양의 대표 농산물인 ‘담양쌀’은 2년 연속 프랑스로 수출되며, 올해는 단일 국가 대상 200톤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물류비와 포장재 등 약 5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총 수출 금액은 약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분야에선 담양읍 ‘은빛급식센터’가 문을 열고 경로당 무료급식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50여명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협력도 지속되



정철원 담양군수(오른쪽)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내 해림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담양군 제공**

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총 13개 사업, 약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읍·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확대해 8월까지 이어지며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며 실행력 있는 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군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100일간 군민 곁에서 직접 듣고 움직이는 행정으로 군정의 중심에 ‘주민의 목소리’를 놓는 데 집중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담양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관내 해림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더위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배식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달 말까지... 8건 선정

전라남도 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금사업은 일반기금사업과 지정기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정기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정해놓은 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장성군이 추진 중인 ‘고향사랑 숲길 조성사업’으로 정해진 액수만큼 기부금이 모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모분야는 △취약주민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js601480@korea.kr) 제출, 군청 총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1인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건만 시상 대상이 된다. 장성군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총 8건을 선정해 10만~5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활기찬 장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신한 제안을 기다린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화순군, 31일까지 납부 요망

전라남도 화순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634건, 48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했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전화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애플망고·흑찰옥수수 기획전 곡성물, 22일까지 할인 진행

전라남도 곡성군은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여름철 대표 농산물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과 쿼즈 이벤트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콤쫄득, 여름 한입!’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애플망고와 흑찰옥수수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준비된 상품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주요 판매 품목은 임마누엘 아트팜의 애플망고와 삼기품영농조합법인, 옥과농협, 통명산숯대마을에서 생산한 흑찰옥수수다.

이번 기획전과 함께 부대 행사로 ‘옥수수 받아가옥! 쿼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곡성물과 기획전 판매 상품에 대한 상식을 주제로 총 3개의 OX 쿼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흑찰옥수수를 무작위로 발송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계절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14일 농협전남본부가 농촌왕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장흥군을 찾아 폭염에 대비해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작업과 건강관리법 등을 안내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예방활동 당부

전라남도 농협전남본부가 14일 정남진 장흥농협을 찾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안내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14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폭염 속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가

동한다.

상황실을 통해 농작물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온에서 발병하기 쉬운 과수 탄저병과 벼멸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도당, 쿨도시, 생수 등 폭염 예방물품도 준비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스프링클러 등 관수장비도 필요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지부, 농축협에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생수와 음료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폭염 취약시간동안 농작업 자제 등 안내메시지 발송과 리플렛 배포 등으로 폭염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 농식품부, 지자체가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고 있는 농촌왕진버스도 강화해 운영한다. 기존 의료서비스 외에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들과 협력해 온열질환 진단 및 안전수칙,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진료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조진용 기자**

영광군, 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과징금 부과 등

전라남도 영광군은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심야 시간대(오전 12시~오전 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로 적발 시 일반 화물차 및 전세버스에는 20만원, 개인 화물차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동안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주요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무단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